

광주시-캐나다 'AI·메타버스 원격 의료' 시대 연다

AI사업단, 비온드 메타버스와 헬스케어 공동 연구·실증 협약

AI기관·기업·대학 협력 네트워크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시와 캐나다 연구기관·기업이 AI·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고도의 원격 의료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7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연구소(MIMS·Mixed-Reality Immersive Motion Simulation)와 글로벌 AI 헬스케어 디지털트윈 고도화를 위한 국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워크숍에는 김준하 AI사업단장을 비롯한 정준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교수·비온드 메타버스 공동 창립자 겸 CEO, 아담 최 비온드 메타버스 공동 창립자 겸 CEO, 황영하 건국대학교 교수, 조성범 메가존 클라우드 부대표, 차현록 한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아담 최 비온드 메타버스(Veyond Metaverse) 공동 창립자 겸 CEO 등이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AI 헬스케어 디지털트윈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국생산기술연구원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AI 헬스케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관, 기업, 대학 간의 공동 연구 및 실증을 목표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워크숍에 이어 AI사업단과 헬스케어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회사인 비온드 메타버스는 글로벌

AI 헬스케어 디지털트윈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헬스케어 디지털트윈의 공동 연구, 실증, 고도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AI 헬스케어 메타버스 및 디지털트윈 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추진,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이다. 주요 기술 영역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원격 의료 교육, 의사 훈련, 수술, 진단, 치료 기술 등이다. 또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내 연구소인 MIMS(Mixed-Reality Immersive Motion Simulation)와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AI사업단의 지원기업이자 AI 메타버스 스타트업 ㈜뉴작 등도 이번 인공지능 국제 협력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했다.

미스(MIMS) 연구소는 캐나다의 공학인증위원회가 인정한 항공우주공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내 연구소로, 비행데이터 분석, 비행 시뮬레이션, 스마트 캐빈 인터페이스 연구 및 실험, AI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최적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광주의 AI 인프라와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기술을 보유한 기업, 기관과 AI 의료 실증을 하는 병원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AI 헬스케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이번 비온드 메타버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메타버스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대학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일 광주테크노파크서 하남·진곡·평동산단 기업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설명회

광주시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인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관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 기업은 연구개발(R&D)·사업화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생산물품 제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진흥공단, 국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획됐다.

설명회에선 광주시의 지방재 지원제도를 비롯한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연구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R&D) 지원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제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설명도 예정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빛고을나눔김장대전’ 대박

역대 최대 14억7000만원 판매

고품질을 내세운 ‘2023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이 흥행과 인기를 동시에 이끌어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2023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에서 1만2000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실적인 218t(14억 70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판매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김장대전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실적으로, 지난해 판매금액 11억원보다도 33.6%나 증가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김장대전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50여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총 50여의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공동체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품질의 원·부재료를 공동구매하고 맛의 균일화를 위한 공동레시피 사용, 광주시의 엄격한 검수 절차 등으로 흥행과 인기를 동시에 이끌어 냈으며,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가족사진 제공, 김치냉장고 경품 이벤트, 먹거리 부스 운영 등으로 참여자 만족도도 크게 높였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여한 단체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는 올해 성공 요인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참여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김치산업 육성, 광주김치타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김장 나눔 봉사 2700kg 전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운·홍기원·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도시공사 정민곤 사장 및 임직원,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봉사단체 봉사자 등 총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보냈다.

도시공사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 2700kg를 영구 임대주택 입주주민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성을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자치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광주시 상임공동대표상 수상

광주시는 “제5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정책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성과, 협의체 등 4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공간지원조직 구축·운영 ▲제2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지역사회문제 해결 매칭데이 운영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수는 인구 10만명당 101.3개소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으며, 2021년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도 9676만원으로 전국 5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속도

올 716개사 1523개 제품 지원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광주’를 통해 716개사 1523개 제품의 판로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159개사) ▲상세페이지 제작(25개사) ▲라이브 커머스·V커머스 제작(190개사) ▲온라인쇼핑몰 입점(254개사) ▲TV광고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58개사) ▲디지털전환 활동 등(30개사)을 지원하는 실적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